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222호 (2010년 9월 둘째 주)

연구기획조정실 · 관광지식정보

[국토해양부] ‘대한민국 해안누리길’ 홍보책자 발간.....	3
[국토해양부] 2012년 제4차 동아시아 해양회의 개최도시 선정, 해양강국 초석 기대.....	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 포럼 개최.....	4
[한국관광공사] 한국, 중국 기업체 인센티브 목적지로 각광받아	5
[한국관광공사] 中 학생단체 방한유치 ‘대박’	5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생산성 종합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7
[서울특별시] 서울역 북부, 대중교통중심의 국제회의시설 조성.....	7
[서울특별시] 이젠 외국인도 즐겨 찾는 서울동물원!.....	9
[서울특별시] 전세계 관광전문가 4백명 서울에 모인다.....	10
[부산광역시] The Dreaming Sea! 남해안호 출항!	12
[부산광역시] 태종대 자유랜드 철거, 주차장·휴식공간으로 변신	13
[대구광역시] 지역의료계, 외국인 환자 유치 분위기 확산	13
[대구광역시] 대구시, 관광안내 서비스 방문객 눈높이 맞춰	14
[광주광역시] 영화영상 제작 관련 문화기업 잇따라 투자 유치	15
[대전광역시] 관광산업 육성 위해 유스호스텔, 특급호텔 건립방안 마련을.....	16
[강원도]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일환으로 “탄광촌의 삶과 문화” 정보서비스 제공	17
[충청북도] 「외국인 전용 무료 셔틀버스(서울-제천) 운영」	17
[충청남도] 충남도, 쓰촨성과 교류협력 방안 협의	18
[충청남도] 대백제전 입장권 예매 98.9% 달성	18
[전라북도] 일본 민간 국제교류의 활로를 넓히다.....	19
[전라남도] 영산강변 문화관광개발 순풍에 돛.....	19
[전라남도] 전남도,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 선포.....	20
[경상북도] 경북-대구 발전정책 ‘공감대’	21
[경상남도] 영호남 관광사업 활성화 손잡다	22
[경상남도]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단 유치 총력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적극 전개.....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산물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날개를 달다.....	25
[해외동향][KOTRA] 러시아, 도박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25
[해외동향][KOTRA] 오만, 라마단 휴일 중 국내외 관광객 급증.....	27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새로운 세금 제도가 여행사에게 혜택 기대.....	31

[국토해양부] '대한민국 해안누리길' 홍보책자 발간

- 52개 노선별 여행정보 상세 수록

다가오는 가을에는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구봉해솔길', '해님이길', '관동별곡800리길'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바닷가 도보여행 정보가 담긴 '대한민국 해안누리길'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해안누리길은 국토해양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6개월간 사전조사와 현지답사를 거쳐 선정한 바닷가 도보여행코스로서, 이번에 노선별 여행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나온 것이다.

책에는 일간지 여행전문기자,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여행작가, 시인 등 7명의 여행 전문가가 우리나라 동서남해안을 직접 답사하며 쓴 노선별 상세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52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안누리길'은 각 코스의 구간별 거리 및 소요시간, 주변 관광지, 맛집과 숙박시설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전문가 특유의 감상과 손에 잡힐 듯 아름다운 해안풍경이 함께 실려 있어 유용한 여행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안누리길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연안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걷기행사 개최와 노선별 스토리 발굴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안누리길은 '아름다운 우리 해안을 마음껏 즐기며 걷는다'는 의미로서, 지난 7월 52개 노선 선정결과가 발표된 이후 도보여행 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 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 : 해양정책과 손명수(02-2110-8445) | 등록일 : 2010.08.31)

[국토해양부] 2012년 제4차 동아시아 해양회의 개최도시 선정, 해양강국 초석 기대

- 「경상남도 창원시」 우선협상대상 도시로 선정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0.9.3(금)일 개최된 「2012년 제4차 동아시아 해양회의(EAS Congress) 개최도시 평가회의」에서 경상남도 창원시가 개최도시 우선협상대상 도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매 3년마다 열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회의로 동아시아 14여개 국가*의 해양관련 각료급 및 고위급공무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000여명이 참가가 예상되며, 주요 행사로는 장관포럼, 정부간 고위급회의, 전문 심포지움(해양환경 주제, 30~40여개), 전시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국) 중국, 일본, 북한,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개최도시 후보지 평가결과, 창원시가 부산시에 평점 1.2점이 앞선 98.6점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경우, 교통편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 창원시가 평가항목 중 가장 배점이 큰 개최도시 환경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 도시가 되었다.

특히, '12년 여수 해양EXPO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통합 창원시의 마산만이 동아시아해양회의의 주관 기관인 PEMSEA의 협력 SITE*인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PEMSEA(동아시아 해역 환경관리 협력기구) : 연안오염총량관리 등 연안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동아시아 국가(14개국) 간 해양환경 협력기구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 도시가 선정된 만큼, 해당 도시와 유치의향서 시행계획의 협의를 시작으로 '12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개최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는 동아시아 해양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질적 지원협력활동 강화를 통해 국격향상 도모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담당 : 해양환경정책과 최준욱(02-504-6747) | 등록일 : 2010.09.0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10년 9월 7일부터 9월8일까지 국토해양부·기업 도시 시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영암·해남 기업도시 인근 현대호텔에서 개최한다.

금번 정책포럼은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 초기단계에서 정책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친 환경 녹색 관광개발 활성화 및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교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째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도에 최근 마련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녹색 시범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연구” 주제 발표(발표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주영 연구위원)를 통해 기업도시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광사업 투자 유치 전략” 발표(발표자 : 숭의여자대학교 김학준 교수)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 성공 및 실패 사례, 투자유치 성공전략 및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F1 국제 자동차경기대회 경기장’ 등 현장견학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책포럼을 계기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국내의 대표적인 저 탄소 녹색 시범도시로 조성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 관광레저도시과 전준산(02-3704-9926) | 등록일 : 2010.09.06)

[한국관광공사] 한국, 중국 기업체 인센티브 목적지로 각광받아

- 중국 중웨이그룹(中威集團) 700명 규모로 방한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오는 9월 9일(목)부터 15일(수) 기간 중 방한하는 700명 규모의 중국 중웨이그룹 인센티브 단체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웨이그룹은 전기석(電氣石) 등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중국 내에서 총회를 개최해 왔다. 동 단체는 오는 9월 9일 중국 텐진(天津)항을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한 후, 경복궁 및 청계천, 명동, 에버랜드 등 관광지를 돌아보고 1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총회 및 만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관광공사 심정보 베이징지사장은 “이번에 유치한 단체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요즘처럼 방한 항공 및 선박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기 기업체가 최초의 해외 인센티브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올해 들어 중국 기업체의 인센티브 단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사 베이징지사의 통계에 의하면 8월말 기준, 방한 중국 기업 인센티브 단체 중 공사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154개 단체 7,893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 90개 단체에서 154개로 71.1%나 급증한 것이며, 방한 인원수도 6,150명에서 28.3% 증가한 것이다. 또한 100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관광공사는 올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로 접어들면서 기업의 경영 실적이 호전되고 작년의 신종플루 발발, 국경절 60주년 행사 등 아웃바운드 관광의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관광공사는 베이징지사 등 5개 해외지사를 ‘MICE 거점지사’로 선정, 특별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등 고부가가치 MICE 단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담당 : 인센티브관광팀 정인화(02-729-9588) | 등록일 : 2010.09.07)

[한국관광공사] 中 학생단체 방한유치 ‘대박’

- 8월 말 기준, 이미 전년대비 200% 육박

중국 청소년들이 몰려오고 있다. 올해 전반적인 중국인 관광객 방한규모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학생단체의 규모는 이러한 증가세를 크게 넘어서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가 올해 8월말까지 13,500명 가까이 방한해 전년도 연 방한규모인 7,100여명을 벌써 두 배 가까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도 8,800여명과 비교해서도 이미 150%의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인원(명)	4,140	8,801	7,119	13,485

올해 들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신종플루로 방한 수학여행에 나서지 못한 대 수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중요 요인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한 중국 수학여행단 대상 노비자 실시와, 그에 앞서 추진된 관광공사의 맞춤형 관광일정 및 프로그램

램 제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광공사는 중국 수학여행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지난 2007년도부터 해외지사를 통한 방한 수학여행 홍보와 관계자 인사초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 왔다. 특히 중국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단순 해외여행 보다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 문화체험 등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지리적 이점, 비용우위, 유교문화, IT 문화 등의 장점도 부각시켰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방한단체 규모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이다. 올해 관광공사가 일부 학생단체(234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96%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왔다. 세부항목에 관해서는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활동이 96%, 방한 수학여행 추천 의사 93%, 수학여행 후 한국에 대한 인상 호전 여부 94%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일반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관광 만족도가 81%이고 타인 추천 항목에서는 75.4%, 이미지개선 항목에서는 73.7%가 ‘그렇다’로 답변한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이는 쇼핑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는 일반 여행상품과 달리, 청소년 상품은 쇼핑이익을 배제하고 원가에 여행사 수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가이드들이 쇼핑에 대한 부담 없이 ‘가이드’ 업무에만 충실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렇듯 중국 수학여행 시장의 양과 질이 성장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방한 수학여행시장이 성숙한 일본과 중국시장은 달리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관광공사 중국팀 호수영 과장은 “중국지역 방한 수학여행은 시장이 주도했다기 보다는 공사가 먼저 준비하고 수요를 창출한 측면이 크다”며 “한국 교류단체 섭외나 장소 준비, 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시장은 이제 틈새시장으로서 확연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 박정하 팀장은 이에 대해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며 “또한 중국 학생들은 향후 재방문 가능성이 높아 매우 중요한 관광시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1가구 1자녀가 대부분인 중국에서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비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소년 수학여행시장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지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일반 중국인 가정 자녀들도 해외 수학여행 대열에 부담없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 담당 : 중국팀 호수영(02-729-9368) | 등록일 : 2010.09.07)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생산성 종합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5연패에 이어 명실상부한 국내·외 최고로 자리매김
- 최상의 공항운영시스템, 고품격 서비스,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높이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가 9월 3일 열린 제34회 국가생산성대회(주최: 지식경제부, 주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공공기관 분야 종합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리더십, 고객만족, 정보화 등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심사항목에서 고무 좋은 성적을 받아 종합대상에 선정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대상수상으로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5년 연속 1위에 이어 명실상부한 국내·외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수요의 꾸준한 상승과 이를 통한 허브경쟁력 확보, 환승률 제고를 위한 항공마케팅 및 환승객 유치 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 환승편의시설 확충)추진, 신속한 입·출국 시스템 구축, 투명·윤리경영, 6년 연속 흑자경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공항산업 해외 수출, 세계 최대의 2014 항공물류엑스포(TIACA) 유치, 공항복합도시(Air City) 개발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부분 등도 수상의 요인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금번 국가생산성 대상 수상은 그동안 인천공항의 모든 종사자들이 최고의 공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 최고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은 물론 세계 공항산업 선도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수상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노사대표의 노사공동선언문 낭독이 있었으며,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단체장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 담당 : 경영관리팀(032-741-5204) | 등록일 : 2010.09.06)

[서울특별시] 서울역 북부, 대중교통중심의 국제회의시설 조성

- 철도로 고립 단절되었던 지역에서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도심 명물로 탈바꿈
- 대규모 열린 광장 조성으로 경복궁-덕수궁 잇는 역사 문화축 역할 수행
- 서울시내 단일층 최대 전시공간(10,800㎡) 확보
- 부족하여 확충 시급한 관광숙박시설 855실 확보로 관광객 유치 기여
-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개발·운영으로 안정적 추진

철도로 고립·단절되었던 서울역 북부에 KTX,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한 40층 높이 국제회의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관리과, 중구청 도시관리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제회의시설 조성사업이 완성되면 서울역은 국제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 되고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철도 이용객 및 시민을 위한 전시·회의 중심의 복합단지로 제공될 예정으로, 지난 2008년 12월 4일 서울시와 철도공사는 서울역북부에 국제회의시설을 유치하여 서울을 아시아 컨벤션의 허브로 육성하고, 서울역을 세계적인 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가 자문 및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국제회의시설 특화 방안, 구)서울역 및 주변 지역과 조화된 경관형성이 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서울역은 KTX,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버스(서울역 복합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교통의 요지로 최적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중심의 도심형 컨벤션센터의 시범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주요 대중교통수단과 지상·지하를 통해 사업부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체계의 연속성을 강화 하였다.

<고립과 단절에서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도심 명물로 탈바꿈>

그 동안 철도로 인해 고립·단절되었던 곳을 국제도시의 관문으로 개발해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도시의 새로운 명물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업무·숙박, 문화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약 28,000㎡의 종합 업무·문화공간과 ·철도선로 상부를 데크화하여 친환경 테마파크를 주제로 한 23,700㎡의 광장을 조성하여 친환경 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 상부를 가로지르며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노후화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데크형 도로를 신설한다.

사업지 중앙부에 지상 9층 규모의 컨벤션을, 양측면에 27층 규모의 호텔과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며, 건축물 총 연면적은 317,000㎡ 규모다.

컨벤션센터는 협소한 부지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층형 구조로 계획하였으며, 서울시 내에서 단일층 최대 규모의 전시장(10,800㎡)과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최대 3,00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은 도심형 복합 문화센터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열린 광장 조성해 경복궁-덕수궁 잇는 역사문화축 역할 수행>

구) 서울역과 연계되도록 대규모의 열린 광장을 조성하여 경복궁 - 덕수궁 - 서울역 - 승례문 - 서소문공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축의 종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동안은 주변 지역이 슬럼화 되는 등 입지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친환경'을 주제로 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재활용' 및 첨단 친환경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하여 일반 건물 대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50%~75% 수준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연간 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8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상승, 도시경쟁력 제고,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로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 서울역 주변 정비와 고가도로를 철거함으로써 서울역이 보다 밝아지고 경관이 개선되어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살아 숨 쉬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부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철도공사는 사업부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직접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 동안 철도시설로 단절된 서울역주변이 동서축을 연결하는 보행공간과 열린 광장 조성으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활력 있는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건축 허가 및 착공,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담당 : 도시관리과 이광구(02-6361-3544) | 등록일 : 2010.09.05)

[서울특별시] 이제 외국인도 즐겨 찾는 서울동물원!

- 9.7(화) 오전10시 서울대공원-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MOU체결식
- 외국인 관람객 증대와 세계적 테마파크로의 도약 발판 마련 위해
- 관람료 할인우대혜택, 정기적인 초청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울대공원(원장 이원효)은 7일(화) 오전 10시 외국인 관람객 증대를 위해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소장 장자끄 그로하)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협약서(MOU)를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의 관계자 들 뿐만 아니라 EUCCK에 제공하게 될 꽃사슴과 알락꼬리여우원숭이와 오랑우탄 보람이도 함께 참석해 동물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협약식이 될 예정이다.

EUCCK는 1986년 2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재정지원을 받아 한국에 기반을 둔 EU기업체들과 EU국가 대사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EUCCK 회원사는 주한유럽기업 600여개사와 한국·기타국기업 170여개사 등 총 850여개 기업과, 27개국 유럽대사관, 비즈니스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MOU체결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다국적 관람객 유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대공원은 EU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울대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할인우대혜택을 7일부터 실시하고, 향후 정기적인 초청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EUCCK 장자끄 그로하 소장과 유럽-코리아재단 지동훈 이사장, 외국인 투자기업 CEO, 주한외국인학교장 등 6명이 서울대공원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홍보대사는 서울대공원 행사 유치 시 참여 및 외국기업 홍보와 서울동물원 1일 동물원장 역할 수행 등을 하게 된다.

EUCCK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들은 서울대공원에서 ‘외국 고객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 점진적으로 주한 유럽 각 대사관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1사 1동물 양부모 맺어주기 운동, 「외국인과 함께 하는 자선모금 행사」, 「음식문화축제」, 「외국기업 협찬으로 동물사 리모델링 지원」, 「작품기증활동」, 「동물장학제도」, 「1일 동물원장 활동」 등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한 외국기업과 각 대사관에서는 각종 행사 진행시 서울대공원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외국인 1일 수의사 체험교실」, 「국내외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외국기업의 서울동물원 환경개선 투자유치 노력」 등에 대한 사업도 연차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각 유럽 국가별 고유의 토속적 성격이 강한 동물을 서울동물원에 기증하는 대신 우리 서울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동물 중 각 국가가 선호하는 동물을 기증함으로써 동물 혈통갱신은 물론 동물개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서울대공원 이원효 원장은 “EUCCK와 외국인 관람객 확대와 홍보를 위해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키로 함에 따라 서울대공원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복합테마파크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국 동물원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등 상호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서울대공원과 EUCCK는 MOU협약 체결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전면에 마련된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내 동물방사장을 방문하여, 기증동물인 꽃사슴(1쌍)을 방사하며 상호 협력을 다지는 행사도 함께 갖는다. 또한 오는 10월 16일에는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하는 서울동물원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특별시, 담당 : 서울대공원 최준선(02-500-7221) | 등록일 : 2010.09.06)

[서울특별시] 전세계 관광전문가 4백명 서울에 모인다

- 서울시, 13일~17일 『2010 서울국제관광대전』 개최
- 20개국 200여개 국내외 관광업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트래블 마트’ 진행
- 해외바이어-국내업체의 심도있는 상담 실시, 실제관광상품판매로 이어지도록 지원
- 국내외관광 활성화 일등공신 6개 분야 11명 선정해 ‘서울관광대상’ 시상
- 나라별 맞춤형 팸투어 실시, 트래블마트 참가기업간 사전 네트워킹시간도 마련

서울시는 오는 9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전 세계 관광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하는 『2010 서울국제관광대전(Seoul International Travel Fair 2010)』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 맞는 「2010 서울국제관광대전」은 국제화된 서울의 가치와 미래를 세계에 알리고 수준높은 관광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한 행사다. 특히 금번 행사부터는 기존의 서울관광 발전 공로자시상식 중심에서 ‘비즈니스 트래블 마트(Business Travel Mart)’로 무게를 옮겨, 실질적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했다.

<20개국 해외바이어가 국내업체와 1대1 비즈니스상담 ‘비즈니스 트래블마트’ 개최>

15·16일 양일간 그랜드하얏트서울 1층 리젠시룸에서는 개최되는 「비즈니스 트래블마트」에는 100여개의 국내 관광업체와 20개국 100여개 해외바이어가 참가해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한다. 인바운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관광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트래블마트’는 자치단체주관 국내최대의 인바운드 관광교역전으로, 중국과 일본 등 기존주력시장은 물론 구미주·중동의 관광업체를 초청해 국내 인바운드 시장 다변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참가업체는 약 200개로 작년 120개에 비해 약 60% 증가했다. 특히 강원, 충북,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및 제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트래블마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관광상품의 해외 판매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별 트레블마트 참여기업 현황>

구분	국가 (업체수)
중화권 38개	중국(36개), 마카오(1개), 대만(1개)
영어권 31개	인도(7개), 미국(4개), 불가리아(4개), 태국(3개), 싱가포르(2개), 아랍에미레이트(2개), 네덜란드(1개), 말레이시아(1개), 브루나이(1개), 베트남(1개), 사우디아라비아(1개), 엘살바도르(1), 캐나다(1개), 필리핀(1개), 홍콩(1개)
일본 22개	일본

<나라별 맞춤형 팸투어 실시, 트레블마트 참가기업 대상 사전 네트워킹의 밤도 개최>

비즈니스 트레블마트에 참가하는 주요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14일에는 「서울관광 팸투어」 및 네트워킹의 밤도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는 언어권별, 관심분야 등 타겟별로 나눠 진행되는 데 영어권 참가자는 전통문화와 도보관광 프로그램 위주로 투어를 진행하고 중화권 및 일어권, 동남아 참가자는 IT, 미용, 의료 등 현대적인 서울형 관광상품을 체험하도록 했다. 아울러 팸투어가 끝난 14일 저녁에는 국내외 약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네트워킹의 밤(2010 Seoul Tourism & Friends)’ 을 개최해 15일 부터 개최되는 ‘트레블 마트’ 를 앞두고 바이어와 국내 관광업체간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광산업계 레드카펫 서울관광대상개최, 서울관광 일등공신 11명 선정해 시상>

관광산업의 레드카펫이라 할 수 있는 「2010 서울국제관광대상(Seoul International Tourism Awards 2010)」 시상식은 16일 국내외 관광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그랜드하이아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2010 서울국제관광대상’ 은 서울관광의 발전진흥 및 글로벌 서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국내·외 공로자를 포상하는 국제 도시관광 전문 시상식이며 수상자는 행사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2010 서울국제관광대상」 은 서울관광활성화에 기여한 관광프로그램 및 여행사, 공로자에 대해 △관광상품 △관광기업 △관광서비스 △관광인 △특별상 등 6개 분야에 11명(기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광대상에서는 가을동화와 겨울연가의 ‘윤석호PD’ 가 최고공로상을 수상했고, ‘박기태 반크단장’ 이 서울관광언론인상, 인기서울관광연예인상에는 ‘탈린트 류시원’ 과 일본에 한국화장품 열풍을 불게한 ‘메이크업아티스트 도요타 가즈유키’ 가 선정되었다.

서울시 임옥기 투자유치담당관은 “2010 서울국제관광대전을 통해 서울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업 및 상품 등을 선정 격려하고 국내 관광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해외바이어들에게 서울과 지방의 연계된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담당 : 관광진흥담당관 김종인(02-3707-9430) | 등록일 : 2010.09.09)

[부산광역시] The Dreaming Sea! 남해안호 출항!

- 9.8 17:00~18:00, 서울 COEX 오디토리움에서 부산·경남·전남시도지사 및 중앙·지방인사 등 1,000 여명 참석
- 남해안을 매력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경남·전남 3개시·도 초광역적 협력체제 구축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3개시·도 관광협의회는 9월 8일 오후 5시 서울 COEX 오디토리움에서 남해안을 매력있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관광활성화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에는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인사와 3개 시·도지사, 시·도의원, 남해안 시·군·구청장 등 지방인사, 그리고 관광업계종사자, 재경향우회 등 1,000여명이 참석하고, 부산에서도 3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의 식전행사로 국악공연 등 오프닝 공연이 있고, ‘The Dreaming Sea! 남해안호의 출항’을 슬로건으로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 부대행사로 3개 시·도 관광홍보 영상물 상영, 5대 테마 35개 공동 프로그램 전시, 남해안 8대 대형이벤트 전시 홍보 등 남해안 관광활성화 국내 판촉행사도 실시한다.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은 부산시와 경남·전남 등 3개 광역시·도가 시행주체가 되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및 3개 시·도비 등 236억원을 투입하여 남해안을 매력있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중복집행 방지를 위해 시·도 공동사업 및 자체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공동사업은 3개 시·도 공공협의회를 구성·추진하고, 자체사업은 시·도별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1개 공동사업에 32억원과 11개 자체사업에 29억 3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으로 △동북아 해양관광 메카 도약위한 크루즈 관련사업 9억 3천만원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블루그린사업 9억 1천만원 △역사자원과 문화자원을 통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시간여행 4억 6천만원 △전통발효음식 체험관광 등 맛 기행 3억 6천만원 △남해안 연안 농·어촌체험 및 길 걷기, 현대도시의 예술아이콘인 비보이 공연 등에 대한 지원으로 현대인을 위한 멋과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멋과 풍류사업에 5억 4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자체사업은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집중 부각하여 스토리텔링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집중 개발·지원하는 차원으로 관광안내 인력풀 운영 등 11개 사업을 확정하여 2012년까지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과 공동대처로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해외 홍보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계획이다.

부산시는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한 초광역적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관광시장 규모 확대, 개별여행이나 체험·녹색관광 등 다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관광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산광역시, 담당 : 관광진흥과 김정희(051-888-3507) | 등록일 : 2010.09.06)

[부산광역시] 태종대 자유랜드 철거, 주차장·휴식공간으로 변신

- 태종대 자유랜드 부지를 주차장·휴식공간으로 조성, 9.11부터 토·일·공휴일 개방
- 총 부지면적 18,650㎡ 중에서 시민 휴식공간(3,450㎡) 및 주차장(6,900㎡/114면)을 자연친화적인 잔디블록 포장으로 조성하는 1단계 공사 완공

주말이면 심한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겪어오던 태종대 주변에 새로운 주차장과 시민 휴식공간이 마련된다.

위치는 태종대 정문 주변 자유랜드 부지로, 부산시설공단(이사장 마선기)은 태종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2단계 조성공사 중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착공한 이번 공사는 총 부지면적 18,650㎡ 중에서 시민 휴식공간(3,450㎡) 및 주차장(6,900㎡/114면)을 자연친화적인 잔디블록 포장으로 조성하였으며, 9월 11일부터 차량이 많은 토·일·공휴일에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그리고 유원지입구 기존 주차장(제1주차장)을 버스전용 주차장(26면)으로 전환하여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주차공간으로 마련, 타 시·도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입구의 주차장은 야간 및 새벽 운동을 위해 찾는 시민들을 위해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또, 잔여부지(8,300㎡)에 대한 2단계 공사는 이용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진입부 계단설치 등으로 2011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랜드는 유희시설 대부분이 해풍에 의해 심한 부식이 진행되어 위험하다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2009년)에 따라, 건축물 18동과 놀이기구 14개소 등을 철거하였다.

(부산광역시, 담당 : 녹지정책과 신영민(051-888-3802) | 등록일 : 2010.09.09)

[대구광역시] 지역의료계, 외국인 환자 유치 분위기 확산

- 지역 91개 병·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

지역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분위기가 금년 들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 이래 지역 91개 병·의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하고 외국인 환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지역의 대형병원과 일부 성형외과, 산부인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최근에는 치과, 대사증후군 한방치료 등 특수한 강점분야의 의료기술을 앞세운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몇몇 의료기관은 해외의료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덕영치과병원(원장 이재운)은 의료관광 전문기업인 (주)맥투어와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주)맥투어가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요녕성청년여행사 및 중국 선양의 최대 종합성형병원인 행림미용정형의원과 의료관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요녕성청년여행사 구돈 총경리, 행림미용정형의원 대표, 동북아경제교류촉진회 진금산 수석 경제부회장, 요녕성방송국 및 심양시방송취재단 등 20여명의 중국의료관광시찰단이 덕영치과병원을 방문하여

임플란트 기술과 외국인 환자 응대 시스템을 둘러보고 대구 의료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여, 앞으로 지속적인 환자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외국인 건강검진 수요에 대비하여 첨단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온 (재)한국의학연구소 대구센터(소장 김현숙)는 종합건강검진과 동성로 쇼핑, 한방체험, 팔공산 관광을 연계한 메디컬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미국, 일본 교포와 중국,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해외 홍보활동을 하여 금년들어 7월30일까지 360여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하며, 오는 9월 7일부터 중국 호북성 무안시를 대상으로 한국 방문객 의료검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노보텔에 입점한 꽃잎위에선 한의원(원장 정태선)은 2011년 세계소방환경기대회기간 동안 엑스코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대구 한방의료로 홍보하였으며 지난 8월 28일에는 호주인 참가자 4명이 한방종합검진을 받고 갔다.

(대구광역시, 담당 : 의료산업팀(053-803-3840) | 등록일 : 2010.09.06)

[대구광역시] 대구시, 관광안내 서비스 방문객 눈높이 맞춰

- 24시간 이용가능 종합관광안내 홍보스티커 / 2만여개소 제작·배포

대구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대구방문의 해를 맞아 외래 관광객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1330종합관광안내홍보 스티커를 제작, 외래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접점 시설에 배포한다.

1330 스티커 제작·배포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및 2011대구방문의 해를 계기로 대구를 찾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게 되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업계의 환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외래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숙박업소, 관광안내소 등 2만여개소에 배포하여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330 안내 전화는 09:00 ~ 18:00까지는 대구시 관광안내센터에서 관광안내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18:00~익일 09:00까지는 한국관광공사 안내센터로 연결이 되어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상담원이 24시간 국내 관광정보(여행지, 교통, 숙박 등)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외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업소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구시의 이번 1330 관광안내 홍보스티커 제작·배포가 언어소통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구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2009년(1~7월) 48,222명 대비하여 2010년(1월~7월) 60,647명으로 25.8%나 증가 했다.

향후 대구시는 관광하기 좋은 도시 = 대구로의 자리매김과 지속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 시스템의 확충,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문 관광가이드 양성 등 관광여건 개선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담당 : 관광문화재과(053-803-6511) | 등록일 : 2010.09.09)

[광주광역시] 영화영상 제작 관련 문화기업 잇따라 투자 유치

- 시각효과 전문 (주)디지털아이디어·3D입체영상제작 지프럼(주) MOU

- 1,100여명 신규 고용창출

광주시에 이달 들어 영화영상 관련 기업과 연이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문화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8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한국 영화계 대표적인 시각효과 분야 전문업체 (주)디지털아이디어(대표이사 이승훈), 3D입체영상 제작 및 개발업체인 지프럼(주)(대표 이성하)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디지털아이디어는 국내외 극장용 장편영화의 시각효과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지난 1998년 ‘퇴마록’을 시작으로 ‘태풍’, ‘모던보이’, ‘놈놈놈’, ‘국가대표’, ‘의형제’ 등 12년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200여편의 VFX(Visual Effects·특수효과)를 제작했다.

Pre-visualization(촬영 전 머릿속으로 구상한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것)부터 New Media, 3D 입체영상까지 다양한 분야를 소화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최고의 VFX 스튜디오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올드보이’, ‘태극기 휘날리며’ 등 해외에서 개봉된 작품들을 작업해 한국영화의 세계 진출에도 참여했으며, 국내 최초 할리우드 영화의 메인 VFX 스튜디오로, 영화 ‘포비든 킹덤’의 VFX 제작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시각효과 스튜디오를 구축, 본격적인 할리우드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다.

지프럼(주)은 입체영상변환엔진(일반영상을 입체영상으로 자동변환 해 주는 오토메이션 툴)을 자체 개발해 해외 메이저 영화사와 광고사로부터 호평을 얻은 영화·영상 콘텐츠 입체전환 제작 전문업체로, ‘볼보자동차’, ‘태양의 서커스’ 등 입체영상 CF를 제작중이다.

광주지역에서는 할리우드 입체영상 컨버팅 제작과 광경택 감독의 영화로 2002년 월드컵 열기 속에 잊혀져 간 연평해전과 그 속에서 목숨을 잃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아름다운 우리’를 3D영화로 아이비픽처스와 공동 제작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주)디지털아이디어는 강제규 감독의 ‘마이웨이’,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 등 국내는 물론, 할리우드 VFX 수주 제작을 통해 1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지프럼(주)은 저작권자와 계약해 할리우드 2D영화를 3D로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 2013년까지 1,000여명의 신규 일자리와 협력업체를 창출,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에는 2023년까지 국비 5조 3,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광주 7대 문화권역에 각종 문화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되고 있다.

또한, 오는 2011년 완공되는 국제적인 3D영상제작기지가 될 CGI센터, 7,984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의 교류, 교육, 전승을 담당하며 체계적이고 풍부한 문화발전소 기능을 하게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등 각종 창조인프라 토대위에 타 지역보다 저렴한 토지비용,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파격적인 감세혜택(국세 5년, 지방세 15년) 등 문화기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활동중인 문화기업체는 애니메이션, 첨단영상 분야 등 총 200여개다. 시는 앞으로 3D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2014년까지 500여개로 끌어올려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경제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는 우수한 두뇌와 문화예술적 끼, 열정 등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역량이 매우 풍부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문화기업체를 적극 유치·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며 “창조적 발상과 부단한 노력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인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광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담당 : 문화예술산업과(062-613-2490) | 등록일 : 2010.09.08)

[대전광역시] 관광산업 육성 위해 유스호스텔, 특급호텔 건립방안 마련을

- 염홍철 시장 9일, 확대간부회의서 지시

염홍철 대전시장은 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제 대학은 산업” 이라고 전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및 외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염시장은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인 ‘제2 누리관’을 원도심에 건립하는 방안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 후견인제 도입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육 이벤트 개최 등의 시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전은 유학생을 최고로 배려하는 도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기존의 특정과목을 선정 이수하는 식의 교육과정인 아닌 대전만의 차별화된 「교양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염시장은 또 “대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오월드 ~ 장태산 ~ 만인산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과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대전컨벤션센터 인근의 특급호텔 건립을 위해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염시장은 또 민선5기 주요공약사업인 지하철2호선 건설 및 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한 일부의 지적에 대해 “대전지하철 2호선건설은 서민 교통복지와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시민요구 사업이고, 생태공원조성은 도시환경을 가꾸고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창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잘 이해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 “2012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조리사대회(WACS) 참가자들이 관광명소 방문과 더불어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말했다.

염시장은 이어 중구의 보문산 아쿠아월드 인근 대형주차장 건설지원 건의와 관련, “등산객 등 일반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시설이라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쿠아월드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시설이라면 사업운영자 측에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며 종합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수통골 주차장 문제와 관련, 유성구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고, “지난 9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앞으로 수통골 방문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담당 : 공보관(042-600-3046) | 등록일 : 2010.09.10)

[강원도]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일환으로 “탄광촌의 삶과 문화” 정보서비스 제공

도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일환으로 9.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탄광지역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구축한 탄광역사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내 여러 폐광지역중 강원도가 최초로 제작하여 제공하기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탄광지역의 삶과 문화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검색창에서 “탄광촌의 삶과 문화” 또는 인터넷 웹주소 <<http://www.coaltour.com>>에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다.

주요 정보자료로는

- ①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석탄산업의 역사,
- ② 주민들의 삶과 탄광촌의 독특한 문화,
- ③ 이들 지역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 ④ 석탄테마 관광시설의 가상체험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강원도 이주익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탄광지역 정보서비스를 통해 많은 네티즌들이 강원도 남부지역의 실상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한 탄광지역 관광지를 직접 방문·체험하는 등 관광객 유입효과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도, 담당 : 관광진흥과(033-249-3238) | 등록일 : 2010.09.06)

[충청북도] 「외국인 전용 무료 셔틀버스(서울-제천) 운영」

- 엑스포 찾는 외국인, 이웃처럼 따뜻한 배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서울에서 제천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협의하여 서울에서 제천간 무료 광역셔틀버스 신규노선을 개설하고 행사기간(9. 16 ~ 10. 16)까지 한달동안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무료광역셔틀버스는 월요일과 추석명절을 제외한 매일 1회 운영되며 오전 8시에 광화문을 출발하여 10시 30분경 엑스포장에 도착하게 된다. 외국인 관람객은 4시간가량 행사장 곳곳을 관람하고 풍성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게 되며 엑스포장을 관람한 후에는 청풍호에 들러 수려하고 멋진 자연경관까지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무료광역셔틀버스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사이트(www.vistkoreatour.com)에 접속하여 특별인센티브사업 중 무료광역셔틀버스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위관계자는 일일평균 6천명의 국내·외 외국인이 접속하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사이트는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홍보사이트로 이번 공동사업 추진으로 청풍명월의 분향 충북 제천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담당 : 공보관실(043-220-2076) | 등록일 : 2010.09.06)

[충청남도] 충남도, 쓰촨성과 교류협력 방안 협의

- 對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약속 받아

세계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G2(미국+중국)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충남도의 발빠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7일 충남도 국제협력과장(김돈곤)은 충남도를 방문한 張維(장위이) 중국 四川省(쓰촨성) 외사판공실 아주처장과 자리를 함께하고 경제·문화·관광·청소년·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오는 10월에 쓰촨성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중국 서부국제박람회에 충남도가 ‘충남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함에 따라 중국 쓰촨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한편, 쓰촨성은 우리나라 국토의 5배가 넘는 넓은 면적과 8,138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 서부내륙지역 개발정책의 거점지역으로 매년 15%의 GDP 성장 등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는 지역으로 충남도는 2008. 9. 5.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상해무역관 쓰촨분소를 설치하는 등 중국 내륙지역 시장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교류를 펼치고 있다.

(충청남도, 담당 : 국제협력과 이상모(042-251-2322) | 등록일 : 2010.09.07)

[충청남도] 대백제전 입장권 예매 98.9% 달성

- 조직위 “행사 성공개최 초석 마련...각계 성원에 감사”

- 8일까지 예약분 수납 계속..16일 폐기전까지 조직위 직판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역사문화 대향연장」 입장 편의를 제공키 위해 발매에 들어갔던 입장권의 예매율이 98.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원. 이하 조직위)는 행사 입장권 예매마감(6일) 결과 100만1,000매 판매 목표에 예약분을 포함, 98.9%인 98만9,714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60억8,400만원 목표에 98.0%인 59억6,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이날 마감때까지 입장권은 배부됐으나 실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예약분은 35만4,485매다.

조직위는 공식적인 예매활동은 6일로 종료한 뒤 8일까지 예약분 수납을 받은 뒤 이후 예약분과 미 판매권은 조직위에서 9일까지 반납을 받고, 16일까지는 최종 정산후 폐기되며, 폐기전까지는 조직위에서 직접 판매키로 했다.

조직위는 이같은 입장권 예매 결과가 행사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충남도민을 비롯한 각계의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개막 전까지 관람객 맞이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조직위 관계자는 “입장권 예매가 당초 목표치에 근접함으로써 행사의 성공개최에 초석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담당 : 세계대백제전조직위 강재규(041-837-6958) | 등록일 : 2010.09.07)

[전라북도] 일본 민간 국제교류의 활로를 넓히다

-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 전북방문
- 백제문화탐방, 한국문화체험, 새만금 시찰 등

전북도가 2009년에 이어 일본교류 확대를 위해 야심 차게 기획한 일본인 백제 문화 탐방단 일행이 9.8-12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우리도를 방문한다.

히고 노리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국장 등 회원 15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단은 방문 기간 동안 새만금 현장 시찰 및 백제 유적지인 익산의 미륵사지와 박물관을 견학하고 한옥마을·부안, 김제등을 방문하여 비빔밥, 김치 만들기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관광명소를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는 전라북도-가고시마 자매.우호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작년(2009년)에 실시한 제 1회 백제문화탐방단의 전북에 대한 높은 평가와 지속적 교류 요청, 양도현 우호관계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지속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라북도 대외소통국 국제협력과 이내성 과장은 "전라북도는 일본 가고시마현과 1989년 10월 우호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문화, 예술, 청소년, 공무원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지속해 왔다. 특히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양도현의 교류가 지속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향후 양도현의 관계가 보다 돈독히 되기를 바라며, 이번 방문단도 우리도에 대한 깊은 이해의 시간을 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탐방단은 12일 출국할 예정인데, 전북도는 이들의 일정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 서포터즈 일본어 통역자원봉사자를 지원해, 도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기획한 2010년 일본 백제문화탐방단은 10월과 11월에 걸쳐 3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는 1990년에 설립된 가고시마현의 출연기관으로 현 지사가 회장이며, 지역 유학생 및 외국인 지원사업과 여권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라북도, 담당 : 국제협력과 장리나(063-280-2811) | 등록일 : 2010.09.07)

[전라남도] 영산강변 문화관광개발 순풍에 돛

-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 수립 세미나에 유인촌 장관 참석 높은 관심

영산강변 문화관광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가 4일 영암 도기문화센터에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과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양복완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김일태 영암군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축척된 강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테마형 관광자원 및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3월 문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의 용역사업 일환으로 열렸다.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은 영산강·섬진강·한강 등 전국 주요 강을 대상으로 강의 공간적, 자연생태적,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발계획은 문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남발전연구원 등 지역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단계로 각 강별로 선도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2단계로 소권역별로 특화사업을 발굴해 2011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산강 에코문화체험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원섭 연구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세미나 후 유인촌 장관은 영산강의 옛 포구인 상대포, 원해창포구 등을 배로 답사해 영산강 역사와 문화자원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영산강 옛 포구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사업내용을 점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전남도는 ‘강변 관광개발계획’에 도내 영산강 주변의 많은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개발계획에 반영돼 영산강 주변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과 함께 관광자원 조사에 적극 협조해 특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061-286-5230) | 등록일 : 2010.09.05)

[전라남도] 전남도,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 선포

-8일 서울 코엑스에서 부산·경남과 함께 해양관광 콘텐츠 홍보

전라남도와 부산·경남 등 영호남 3개 지방자치단체가 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3개 시도 지자체장은 물론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국회의원, 한국관광협회, 관계 시도 의원 및 공무원, 여행사, 호텔업계 등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대외적 홍보활동을 펼쳤다.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은 전남도 등 남해안 3개 시도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27개 시군구의 풍부한 자연과 생태,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상호 연계해 개발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다.

4년동안 전남에 16개 사업 70억원 등 총 210억원이 투입돼 시간여행, 맛기행, 멋과 풍류, 블루&그린, 크루즈 등 5개 테마로 전체 35개 관광 프로그램, 지자체별 사업, 공동홍보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자신의 관심사와 선호도에 맞는 여행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2020년까지 2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은 더욱 힘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오는 2020년 연간 45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남해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3면이 바다이고 빼어난 절경을 갖추고 있는 천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직 해외에 내로라할 대표적인 큰 규모의 해양관광단지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남해안을 끼고 있는 영호남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광벨트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사에 한 획을 긋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지사는 “남해안 관광활성화 선포식을 계기로 남해안 3개 시도가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해안·갯벌 등 관광자원과 태양광·조류·해상풍력 등 에너지원 등을 활용한 하나의 관광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분야 PF대출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완화하는 등의 문제를 정부와 함께 풀어가 남해안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의 시작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고 중흥기는 2012 여수국제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초로 열리는 F1대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061-286-5220) | 등록일 : 2010.09.08)

[경상북도] 경북-대구 발전정책 '공감대'

-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 시도의회 초청 발전정책 설명회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김범일 대구시장)는 정부의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9일 대구 엑스코에서 '경상북도·대구시 광역의회 의원 초청 지역발전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날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초광역권·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 발전계획'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경권 광역경제정책에 대한 시도의회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성과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 박광길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담고 있는 발전전략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경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국제적 경쟁단위로 광역권이 부각되고 있는 이때, 같은 역사와 뿌리를 가진 대구경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더욱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지역의 각종 공동 현안사업들도 시도가 한마음이 되어 꼭 성공시켜야 국내외적으로 다른 광역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 이어 다음달 5일에는 경주힐튼호텔에서 경북도내 23개 시군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정책 설명회가 열린다.

(경상북도, 담당 : 박정우(053-950-3057) | 등록일 : 2010.09.09)

[경상남도] 영호남 관광사업 활성화 손잡다

-경남도·부산시·전남도 관광자원 개발 추진

-8일 오후 3시 서울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김두관 지사 “관광대국 가는 중요한 역할”

경남과 부산, 전남이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영호남은 대한민국 해양관광 중심지로 남해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 전라남도, 경상남도 영호남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남해안관광 활성화 사업’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외홍보활동에 나섰다.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은 경상남도와 부산시, 전라남도 남해안 3개 시·도가 해안선과 접하고 있는 27개 시군구의 풍부한 자연과 생태,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상호 연계해 개발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다.

정부도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정부와 지자체가 2020년까지 2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연간 45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남해안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지자체가 나서서 거대한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그를 통해 엄청난 관광수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사례가 많다.

일본의 경우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무라코오시(마을부흥)’ 운동을 통해 지역 농업과 전통문화, 특산물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그린 투어리즘 사업이 2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랑독 루시양은 중심도시인 몽펠리에를 포함해 7개 관광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2만개의 룸을 갖춘 호텔과 장기임차가 가능한 아파트, 9,000척의 요트를 수용하는 마리나센터를 갖춰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해양관광단지로 명성이 높다.

현재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고 빼어난 절경을 갖추고 있는 천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직 해외에 내로라할 대표적인 큰 규모의 해양관광단지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훌륭한 관광단지는 많지만 내외국인들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크고 매력적인 관광단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남해안을 끼고 있는 영호남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해 한국 관광산업사에 큰 획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간여행, 맛기행, 멋과 풍류, 블루&그린, 크루즈 등 5개 테마로 전체 35개 관광 프로그램을 제시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자신의 관심사와 선호도에 맞는 여행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남해안 관광활성화 선포식은 3개 시도 지자체장을 비롯해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국회의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 지방), 관계 시·도의원, 여행사, 호텔업계 등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대외적인 홍보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번 남해안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는 3개 지자체가 함께 국가적인 해양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영호남이 하나로 뭉쳐 국가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어 “이번 사업은 남해안 지역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나라를 관광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담당 : 관광진흥과 윤문호(055-211-4992) | 등록일 : 2010.09.08)

[경상남도]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단 유치 총력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본격 활동

-유치위원회 27일 출범식·간담회 개최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도민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간다.

8일 경남도는 경남의 최우선 현안 해결 과제인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도민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구성, 산단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공식 출범할 유치위원회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김재경, 최구식, 강기갑 국회의원(이상 고문), 경남일보 하순봉 회장, 경상대학교 하우송 총장, 진주시 이창희 시장, 사천시 정만규 시장, 경남도의회 허기도 의장, 진주시의회 김두행 의장, 사천시의회 최동식 의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홍경 사장, 진주상공회의소 이윤우 회장, 사천상공회의소 강정진 회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진주시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하순봉 경남일보 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유치위원회는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기관 핵심인사와 접촉해 경남 진주·사천 연담지구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위성 및 필요성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한편 경남도와 진주·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유치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진주 동방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출범식을 겸한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단 유치위원회를 출범한 것을 계기로 실무위원회를 발족해 산단조성 추진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두관 도지사는 “진주·사천 항공산단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진주·사천 시장과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경남도는 조직, 정책, 재정 등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산단조성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국회의원은 “범도민 차원의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위원회’를 드디어 구성하게 됐다. 지난 수개월간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보람이 있다”며 “앞으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 정치인 및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3위 일체가 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유치하자”고 당부했다.

(경상남도, 담당 : 남해안기획관실 김기룡(055-211-2863) | 등록일 : 2010.09.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적극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0 부산 국제 의료관광 컨벤션」에 9. 1일부터 9. 3일까지 참가한다고 밝혔다.

「2010 부산 국제 의료관광 컨벤션」은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행사로 '10. 9. 1 ~ 9. 3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회의, 전시회, 한·일 의료관광 특별 교류전,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번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제주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주의 의료관광과 선도병원의 특화된 의료기술을 홍보하고 더불어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국내·외 유치 에이전시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코리아 2010」 행사에 JDC와 공동으로 참가하여 의료관광 홍보마케팅과 더불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5월에는 「제주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인 제주한라병원과 예치과와 공동으로 중국 심양, 대련지역에서 중국인 의료기관 관계자, 잠재고객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선도병원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제주를 찾는 의료관광객과 의료기관 관계자의 발걸음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중국 하북성 천진시에서 단체 성형 의료관광객 16명이 내도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중국 절강성 관계자 46명, 상해시 관계자 24명이 방문한데 이어 8. 24에는 중국 중의학협회 관계자 32명, 9. 9에는 우즈베키스탄 관계자 24명, 9. 16에는 몽골 의료기관 관계자 20명이 방문하여 의료관광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대형 의료국제행사에 참여,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9. 16 ~ 10. 16), ‘2010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10. 29 ~ 11. 7/전남 장흥), ‘2010 서울 국제헬스케어박람회’ (11. 29 ~ 12. 1) 등에 선도병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료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9. 16부터 9. 18까지 개최되는 ‘중국 광조우 미용·화장품 박람회’에도 제주의료관광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하여 제주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교육의료산업팀 김태언(064-710-2445) | 등록일 : 2010.09.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산물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날개를 달다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인 향토자원 활용 5대 성장산업의 하나인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T/F팀이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프랜차이즈 전문가, 교수, 유통업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금년말까지 연구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방안은 ”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식품산업, 물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함께 향토자원 활용 5대 성장산업에 속하며, 청정제주의 특산물을 프랜차이즈 산업화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T/F팀은 프랜차이즈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육성 방안, 가맹점 모집 및 지원 방안,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과 함께 “제주마썸” 등 공동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연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T/F팀 운영과 함께 ‘09년 9월에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대책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가맹본부 육성과 가맹점 지원 등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상호, 특허 상표, 기술 등을 보유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매점과 계약을 통해 상표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때 기술을 보유한 자를 프랜차이즈(Franchisor, 본사), 기술을 전수 받는 자를 프랜차이즈(franchisee, 가맹점)라한다.

프랜차이즈산업은 미국에서 탄생하여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 보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1978년 외식업 위주로 도입되었다. “롯데리아”의 성공을 계기로 KFC, 피자헛, 파리바게트, 던킨 도너츠 등 많은 국내외의 외식업체들이 프랜차이즈의 성공신화를 만들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최근 유통, 교육서비스, 식품유통, 환경, 건강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지식경제국 양익석(064-710-2626) | 등록일 : 2010.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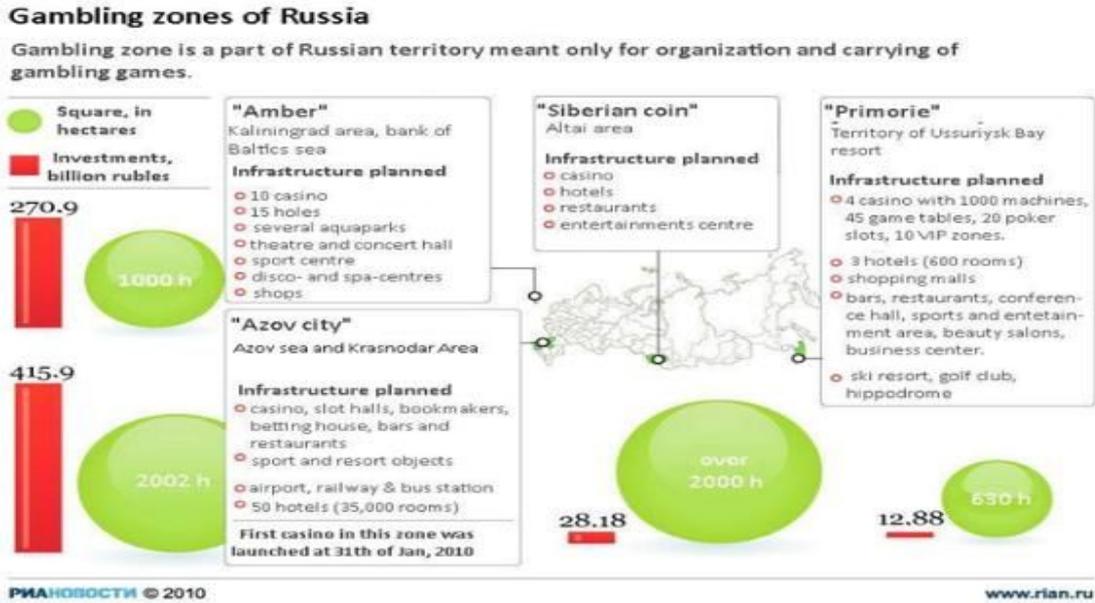
[해외동향][KOTRA] 러시아, 도박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2009년 4개 지역 선정, 현지 부지 경매 등 투자자 유치 추진

□ 도박특구 추진 현황

- 러시아 정부는 2009년 6월 1일부로 그동안 모스크바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카지노 등 도박장을 전면 폐쇄하는 한편 칼리닌그라드, 크라스노다르, 알타이, 프리모리예 등 4개 지역에 도박특구를 설치하기로 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완료한 바 있음.
- 1년이 지난 현재 4개의 도박특구는 이미 건설이 시작된 지역이 있고 토지임대(매각) 및 사업장 건설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 중인 지역도 있는 등 지역별로 사업 진척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 4개 도박단지 조성 현황



자료원 : www.casino.ru

□ 4개 도박특구별 사업추진 현황

○ Azov city Zone

-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위치한 아조프(Azov city Zone) 도박특구는 러시아 내 2개 도박특구 중 가장 빠른 사업 진척을 보임. 2010년 현재 러시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도박업이 시작된 유일한 지역으로 카지노 1곳이 영업 중이며, 6개 업체가 추가로 관심을 표명한 상태로 향후 카지노를 포함한 호텔과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임.
- Mr. Lenar Cashapov 아조프 도박특구개발협회 회장에 따르면, 아조프 도박특구의 개발은 라스베이가스 및 마카오에서 개발 경험을 가진 미국 기업이 맡으며, 카지노 방문고객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Amber

- 독일과 폴란드 국경 사이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에 조성될 Amber 도박특구는 상기 아조프 도박특구와 함께 우랄산맥 서쪽에 위치한 두 번째 도박특구로 유럽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발굴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진척이 더딘 이유로는 현지 지방정부가 사업초기부터 특구가 조성될 토지를 임대기 아닌 매각을 추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후보지는 2곳(26억 달러 상당의 27.3ha 부지와 9억8000만 달러 상당의 7.3ha)로 최종 확정된 상태임.
- 2009년 9차례에 걸쳐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 됐으며, 경매 절차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로 현지 지방정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각이 아닌 임대료의 전환을 재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칼리닌그라드 주지사(Mr. Boos)는 2010년 9월부터 1단계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Siberian coin

- 러시아 중부내륙 지역인 시베리아 알타이에 위치할 Siberian coin 도박특구는 2010년 6월 시베리아의 케메로보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1개의 카지노가 2010년 말 완공 목표로 건설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총 4억2000만 루블(약 1400만 달러)이 투자돼 카지노를 포함한 호텔 2개가 추가 건설될 계획임.

○ Primorie

- 러시아 극동지역에 들어설 Primorie 도박특구는 우수리스크만 근교에 약 620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함.
- 극동지역 카지노 협회장(Mr. Chunaev)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프리모리에 정부가 전담 추진 중이며, 100%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5월 프로젝트 부지에 대한 임대 경매가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낙찰업체는 밝혀지지 않음.

자료원 : www.casino.ru, www.kaliningrad.net, kaliningrad.rfn.ru, www.regnum.ru, gorodkanta.ru,
코트라 노보시비르스크K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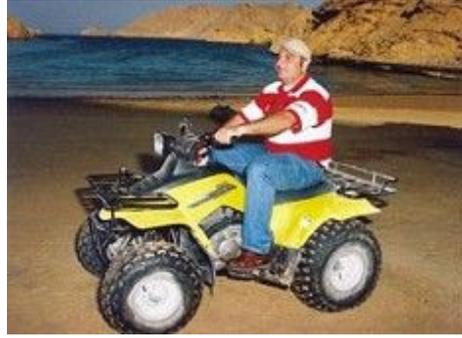
(KOTRA, 담당 : 채승완(ericchae@kotra.or.kr) | 등록일 : 2010.09.06)

[해외동향][KOTRA] 오만, 라마단 휴일 중 국내외 관광객 급증

- 유람선 등 해상관광 중심
- 해외 관광객은 주로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계

□ 다가오는 이드 휴일기간, 국내외 관광객 몰려

- 오만 정부는 9월 11~15일 기간을 올 이드(라마단) 휴일로 공표
 - 목, 금요일이 현지 휴일 이므로 사실상 9일(목)부터 17일(금)까지 9일간의 장기 휴무가 시작됨.
-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해외로 여행가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오만인과 오만 거주 제 3국인들은 주요 해변 및 jabal akhadar, wahiba sands, al hota caves, 라스 알 하드 지역 turtle beach 등을 찾아 휴식을 즐기면서 스노쿨링, 유람선 관광 등 해상 관광을 즐길 예정임.
- 한편, 올 이드 휴일은 그동안의 폭염도 많이 누그러져 오만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오만에는 긴 해안선이 있어 거북해안, 돌고래 관광, 스노쿨링, 유람선 관광 등 해상관광이 유명
 - 육상관광으로는 와디(건천), 사막투어 등이 유명



□ 오만 관광산업 부문, 2018년 16억 달러 상회 전망

- WTTC(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에 따르면, 2008년 기준 9억4408만 달러 규모인 오만의 관광산업 부문이 2018년에는 16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오만 관광부(Ministry of Tourism)는 2020년까지 총 3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 그 일환으로 올 2월 무스카트 항구에 700만 달러 규모의 고급 유람선 터미널을 개장했으며, 이 터미널에는 쇼핑점, 면세점, 전통 수공예품점, 인터넷 카페 등 시설이 입주해 있음.
- 연간 14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유람선 관광산업에서 앞서가기 위해 오만 관광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금년 중 15만 명 이상의 유람선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
 - 오만 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내 오만에 취항할 선박수는 전년 대비 40%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함.
- 2009년까지 오만을 방문한 유람선들은 모두 수도 무스카트나 남부 휴양지인 살랄라에 취항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Khasab 지역에도 취항하기 시작
- 오만 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람선 1척 도착이 오만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은 유람선 규모에 따라 1일당 80만~2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함.
 - B747 기종 4대가 한꺼번에 도착한 것과 비슷한 규모라고 함.
 - 승객 및 승무원 환승시 기여도는 더욱 커지게 됨.

□ 유럽계 유람선 업체들이 시장 주도

- 오만 유람선시장은 Costa, AIDA, Seabourne Cruises, Hapag-Lloyd, Silversea,

Transocean Tours 등 유럽계 업체들이 주도함.

- 승객들 대부분의 출항지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임.
- Hapag-Lloyd 등과 같이 소형 유람선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최근 Khasab 및 무산담 지역 취항을 시도함.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에 위치하며 긴 해안선을 가진 문화적·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만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며 현지 여행업체들이 운영 중인 1일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객들의 평가도 매우 우호적임.
- 세계적 유람선 업체들은 무스카트 항구를 매우 경관이 뛰어난 항구로 평가하며, 걸프지역 유람선 관광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지역으로 평가
- 연중 무더운 기후로 유람선 관광은 겨울철인 10월~3월에 집중돼 있음.
- 관광수입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만 관광부와 민간부문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관광부는 터미널 설치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내외 유람선 관광 진흥을 조직적으로 전개
 - 지상취급 업체(ground-handlers)들은 통관, 셔틀버스, 정박/출항, 통역, 의료지원, 경비, 분실물 추적/배송, 경찰청 관련 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현지 여행업체들은 유람선 정박 후 승객들의 관광을 지원

2010년 오만 취항 주요 유람선

업체명	유람선명	국적	선박 정보
Princess Cruises	Ocean Princess	호주	건조연도 : 2000년 수용 가능 승객 : 1,950명 승무원 : 830명 무게 : 77,000톤 갑판 : 12개
Sea Bourn	Sea Bourn Spirit	독일	건조연도 : 1989년 수용 가능 승객 : 204명 승무원 : 150명 무게 : 10,000톤 갑판 : 6개
Silver Sea	Silver Wind	이탈리아	건조연도 : 1994년 수용 가능 승객 : 296명 승무원 : 209명 무게 : 16,500 갑판 : 6개
Cunrad	Queen Elizabeth	영국	건조연도 : 2007년 수용 가능 승객 : 2,092명 승무원 : 996명 무게 : 90,400톤 갑판 : 12개

Princess Cruises	Dawn Princess	호주	건조연도 : 1998년 수용 가능 승객 : 1,950명 승무원 : 900명 무게 : 77,000톤 갑판 : 12개
Costa Cruises	Costa Deliziosa	이탈리아	건조연도 : 2010년 수용 가능 승객 : 2,826명 승무원 : 1,100명 무게 : 92,600톤 갑판 : 16개

자료원 : Khimji Ramdas Shipping LLC

- Zahara Tours사는 소형 유람선 업체인 이탈리아 Silver Sea사와 제휴해 관광객들에게 고가의 고급 관광서비스를 제공 중임.
- 주요 지상취급 업체인 Khimji Ramdas Shipping LLC는 Costa Cruises, Silver Sea, AIDA 등 주요 유람선 업체들의 현지 에이전트로 활발히 활동 중임.

□ ‘Now is the Time’ 캠페인 전개 중

- 오만 관광부, 오만 항공 및 무스카트 소재 주요 호텔들이 협력해 올 4월 12일~10월 10일 기간 유럽 전역에 대해 ‘Now is the Time’ 이라는 관광 캠페인을 전개 중임.
- 이 캠페인을 통해 6~7일 일정의 가격 경쟁력 있는 패키지 상품을 홍보 중인데, 유럽 전 지역에서 가격이 동일함.
 - 적극적 홍보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살랄라 항만청은 교통통신부와 협력해 항구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 중임.
 - 이미 많은 유람선 관광객들이 찾는 살랄라 항구는 5년 내로 국제수준의 유람선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임.

□ 시사점

- 석유·가스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오만은 산업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관광 산업 진흥에 큰 노력을 기울임.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에 위치하며 긴 해안선을 가진 문화적·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해상 관광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오만을 찾는 관광객들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고급 관광서비스, 지상취급 및 호텔업 등 관련 산업도 더욱 발달할 것임.
- 이에 따라 국내업체의 호텔용품, 지상취급용품 등 관련 제품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여행업 등 서비스 산업으로의 직접 진출도 검토해 볼만할 것임.

자료원 : 오만 관광청, Khimji Ramdas Shipping LLC 인터뷰 및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KOTRA, 담당 : 김동현 | 등록일 : 2010.09.07)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새로운 세금 제도가 여행사에게 혜택 기대

- 영국 정부는 현재 해외 지사를 운영 중인 영국 사업체를 돕기 위한 세금제도 변경 안을 협의 중에 있음. 이는 해외에 지사를 운영 중인 여행사들에게 혜택을 줄 것임.
- 정부가 해외 지사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를 협의 중인 것은 영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국 지사와 영국 회사 간의 일관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임. 이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스키 회사 등 많은 여행사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현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내는 세금이 영국 세금보다 적으면 영국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함.
- 이것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은 물론 여행사들이 잠재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며, 그들이 협의 과정에서 납득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임.
- 이러한 세금 혜택은 근본적으로 석유, 가스, 보험, 은행과 같은 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여행사도 이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전함.

(출처 : Tavelmole 2010.08.25)

(한국관광공사, 담당 : 김옥신(rosablu@mail.knto.or.kr) | 등록일 : 2010.09.06)